



## 이번주 은혜의 말씀

본문: 창세기 38장 1-11절

날짜: 4월 26일, 2026년

설교자: 정동석 목사님

창세기 38장 본문은 장자권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고대 유대인들에게는 장자권을 갖는 것이 큰 축복이자, 한 가족의 후사를 이어가야 하는 중요한 책임이었습니다. 신명기 25장 5~6절을 살펴보면, 형제가 아들 없이 죽으면 그 형제가 형수와 부부가 되어 죽은 형제의 후사를 잇게 하는 법이 있습니다. 이 법이 가리키는 궁극적인 의미는 개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가족'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70억 명의 인구가 살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오직 '첫째 아담'과 '마지막 아담', 이 두 사람만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써도 죄인이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몸에서 태어난 우리는 날 때부터 자동적으로 죄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 개인의 의지나 노력과는 상관없이 아담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사람으로 보내셨고 그 예수의 죽음과 부활로 인하여, 그 사실을 믿는 순간 우리는 예수 안에 포함됩니다.

우리는 육신적으로 보면 여전히 죄인이고 빚쟁이입니다. 그러나 재벌이 우리의 빛을 대신 갚아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청산하셨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하십니다. 이 진리가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고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종교

인에 불과하며, 이 사실이 믿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야곱의 아들 유다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잇따라 죽임을 당하자, 막내 셸라가 어리고 또 죽을까 두려워하여 며느리 다말을 친정으로 보냈으며 장자권 회복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 유다가 장자권 회복에 뜻이 없음을 안 다말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시아버지 유다를 만나 장자권을 잇기 위한 결단을 내립니다.

다말은 이방 여자였지만, 대가 끊길 위기의 상황 속에서 창녀로 가장하면서까지 시아버지 유다를 만나 후사를 잇고자 했습니다. 훗날 유다는 다말이 잉태한 사실을 알고 그를 불사하려 했다가 약조물을 확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습니다. 유다는 "그 여인은 나보다 옳도다"라며 장자의 명분을 얻으려 했던 다말의 믿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다말은 이처럼 세상의 윤리나 멸시를 뛰어넘어, 장자의 명분이라는 생명의 목적을 위해 사력을 다했습니다. 성경의 족보에 등장하는 다말이나 롯과 같은 여성들은 환경에 눌리지 않고 장자권을 지켜낸 믿음의 인물들입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장자인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는 세 가지 직분(삼직)이 주어졌습니다. 이 세 가지 직분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완성됩니다. 첫째, 선지자로서 참된 진리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어 어두운 마음에 빛과 평강을 줍니다. 둘째, 대제사장으로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영원한 영광과 연결되게 합니다. 셋째, 왕으로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권능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합니다.

예수님은 2천 년 전 세상에 오셔서 죽

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한 것이 장자권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죽고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 분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발견한 사람들이 영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영의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의 보좌와 영원하신 영과 연결된 사람입니다. 주님이 주신 기쁨과 평강 가운데 사는 사람들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기독교인은 환경의 어려움이나 육체의 질병, 문제에 갇혀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위치와 신분은 육체에 있지 않고 성령으로 거듭난 '영의 사람'입니다. 세상의 어려운 현실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에서는 물질과 빵을 진리로 여겼기 때문에 팔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 버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앞의 빵과 물질, 현실적인 이익만을 좇아 살아갑니다. 하지만 성도는 영원한 진리를 따르는 하늘의 백성입니다. 육신에서 나오는 생각과 느낌, 감정들을 사탄의 것으로 여기고 십자가에 넘겨야 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내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사실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이 진리를 확신할 때 질병이나 어려운 환경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며, 오히려 담대하게 명령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이 성경을 믿고 받아들이는 축복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해당 설교는 오른쪽의 QR코드를 스캔하셔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 Sermon of the Week:

## The Birthright That Overcomes the World



**Passage:** Genesis 38: 1-11 (ESV)

**Date:** April 26, 2026

**Pastor:** Dong Suk Chung

Genesis 38 contains an important lesson regarding birthrights. For the ancient Jews, possessing the birthright was a great blessing as well as a significant responsibility of continuing the family's lineage. In Deuteronomy 25:5-6, there is a law stating that if a brother dies without a son, his brother must marry the widow to carry on the deceased brother's line. The ultimate meaning of this law is that the "family" is important, rather than the individual.

Although over 7 billion people live in this world, before God, only two people exist: the "First Adam" and the "Second Adam". Therefore, each of us belongs to either the First Adam or the Second. The fundamental reason we become sinners, even when we try not to sin, is because Adam sinned. Since we were born from his body, we automatically become sinners from birth. Our lives were included in Adam's, regardless of our individual will or efforts. Similarly, God sent His only begotten Son, Jesus, into the world as a man, as the Second Adam. Through Jesus' death and resurrection, the moment we believe that fact, we are included in Jesus.

From our fleshly perspective, we are still sinners and debtors. However, just as a wealthy man might pay off our debts on our behalf, Jesus Christ completely paid for all our sins on the cross; thus God acknowledges us as "righteous". If this truth is not fully actualized within us and we merely attend church, we are nothing more than religious people, but when this fact is believed, we finally enjoy true

freedom from the chains of sin.

When Judah's first and second sons were killed for doing evil before God, Judah feared that his youngest son, Shelah, might also die. In addition, he thought his son was too young to carry on his brother's lineage, so he sent his daughter-in-law, Tamar, back to her father's house and showed no interest in restoring the birthright. Realizing that her father-in-law had no intention of restoring the birthright, Tamar risked everything and made the decision to use Judah to continue the lineage of the firstborn.

Although Tamar was a foreign woman, in a situation where the family line was in danger of being cut off, she went as far as disguising herself as a prostitute to meet her father-in-law and continue the line. Later, when Judah discovered Tamar was pregnant, he intended to punish her, but after identifying her as the prostitute he had met, he realized his mistake. Judah acknowledged Tamar's faith in seeking the birthright, saying, "She is more righteous than I." In this way, Tamar devoted herself completely to the purpose of life represented by the rights of the firstborn, transcending above the ethics and contempt of the world. Like Ruth, Tamar is a figure of faith who overcame social stigmas and difficult circumstances to protect the spiritual legacy.

In the Old Testament era, three offices – prophet, priest, and king – were given to the nation of Israel, God's firstborn. These three offices are perfectly fulfilled today within Jesus Christ. First, as a prophet, He gives light and peace to darkened hearts by proclaiming the truth of the death and resurrection of the cross to people. Second, as the high priest, He leads people to God and connects them to eternal glory. Third, as a king, He becomes the one who rules over us with God's

precious love and power.

Jesus came into the world 2,000 years ago and completed this work through His death and resurrection. Therefore, our union with Jesus Christ through faith is how we obtain our birthright. Jesus died and rose with us and is now at the right hand of the throne of God. We are in Him. Those who discover this are people of the Spirit. Therefore, a person of the Spirit is connected to the eternal throne of God and the eternal Spirit. They are people who live amidst the joy and peace given by the Lord.

Many Christians living today are trapped by difficult circumstances, physical illness, and problems. However, our true position and identity are not in the flesh but as "people of the Spirit" born again through the Holy Spirit. The difficult realities of the world cannot rule over us.

Because Esau valued material things and bread as the truth, he sold his birthright for a single bowl of lentil stew. People of the world live chasing only the bread, material things, and practical interests before their eyes. However, saints are heavenly citizens who follow eternal truth. We must regard the thoughts, feelings, and emotions arising from the flesh as belonging to Satan and surrender them to the cross. In our daily lives, we must firmly believe that our identity is as children of God and that through Jesus Christ all problems have already been resolved. When we are convinced of this truth, illnesses and difficult circumstances cannot rule over us; instead we live victorious lives, boldly commanding and overcoming everything. May the blessing of believing and accepting this Bible, which still speaks to us today, overflow within us.

### 나성교회 연락처

- +1 562-690-7979
- <https://nasungchurch.net>
- [information@nasungchurch.net](mailto:information@nasungchurch.net)
- 1620 Fullerton Rd  
La Habra Heights  
CA 90631
- 도서관 운영 시간  
주일 오전 9:30 - 오후 1:30

### 나성교회 예배안내

모임	시간	장소
주일예배 1부	오전 8시	대예배실
주일예배 2부	오전 11시	대예배실
영어부 예배 (RHBC)	오전 11시10분	EM 예배실
수요예배	오후 7시 30분	대예배실
유치, 유년부 (Seeds)	오전 11시	Seeds Room
중, 고등부 (Abide)	오전 11시 10분	EM 예배실

### 삼성교회 연락처

- +82 02-2293-4421
- <http://samsungch.or.kr>
-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400 (우) 04701
- 지하철
  - 2호선 상왕십리역(1번 출구)
  - 2호선 신당역(2번 출구)
- 버스
  - 147, 202, 241, 302, 463, N62, N73, 1017, 2012, 2013, 2014, 2015, 6211, 성동01

### 삼성교회 예배안내

모임	시간	장소
주일예배 1부	오전 9시	대예배실 (지하 1,2층)
주일예배 2부	오전 11시	대예배실
수요예배	오후 7시 30분	대예배실
유치부	오전 11시	4층 예배실
유년 주일학교	오전 11시	2층 예배실
청소년부	오전 10시 30분	3층 예배실
청년부	오후 2시 30분	3층 예배실